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OF ADVENT

주후 2020년 11월 2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 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8 번 고린도전서 13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 1:16-20	이선호 집사
한어 설교 Korean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 (3) - 믿음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By Faith)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경고한 것과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세상에 만연한 불신과 거짓과 불의와 교만을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크게 낙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금 주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딤후 3: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글개역 롬 1:17)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NIV Romans 1:1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9 (주일)	11/30 (월)	11/1 (화)	12/2 (수)	12/3 (목)	12/4 (금)	12/5 (토)
본문	대상26,27 벧후1	대상28 벧후2	대상29 벧후3	대하1 요일1	대하2 요일2	대하3,4 요일3	대하5-6:11 요일4
	미4	미5	미6	미7	나1	나2	나3
	눅13	눅14	눅15	눅16	눅17	눅18	눅19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2 오후7:30)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민 35:1-8)
토요 새벽기도회 (12/5 오전6:30)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시 17:1-15)

지난 주일(11/22)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 - 감사함으로” (합 3:17-19)

올해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우울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Life Way Researc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감사한지?” 를 묻는 질문에, 3명 중 2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올해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대답한 비율(67%)이 4년 전(2016년, 63%) 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즉,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이 전해주는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듯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합3:17)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처럼 어려운
현실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
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8)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례하고, 2)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과 비례하며, 또한, 3)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항상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와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